

현대차·기아 “2030년 국내서 전기차 144만대 생산”

전기차 생산·충전 인프라에 21조 쏟아 붓는다

2030년 세계 전기차 시장 12% 점유 목표
차급별 다양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SPC 설립 통해 초고속 충전 인프라 강화
기아, 국내 첫 PBV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

현대자동차·기아가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총 21조 원을 투자한다. 또한 올해 35만대로 예상되는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은 2030년 144만대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44만대는 2030년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의 45%에 달하는 물량으로, 2030년 글로벌 전체 전기차 생산량인 323만대 중 절반가량을 국내에서 생산하게 된다.

아울러 기아는 전기차 국내 생산 확대의 일환으로 오토랜드 화성에 수천억 원을 투입해 연간 최대 15만대 생산 능력을 갖춘 신개념 PBV(목적 기반 차량)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한다. 현대차·기아는 18일 이 같은 전기차 생산 확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국내 전기차 생태계 고도화

현대차·기아가 국내 전기차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이유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1조 원은 전기차 생산 능력 확충, 전용 전기차 라인업 다양화 및 부품·선행기술 개발, 인프라 조성, 전기차 관련 신사업 및 전략제출 등에 활용된다.

전기차의 근본적인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2025년 도입하는 승용 전기차 전용 ‘eM’ 플랫폼을 비롯해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IMA)’ 체계 하에서 차급별 다양한 전용 플랫폼들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초고속 충전 인프라 투자도 강화한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3월, ‘전기차 초고속 충전 브랜드 ‘이피트(E-pit)’를 출범시켰고, 올해 4월에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플랫폼(E-CSP)을 론칭했다.

또한 롯데그룹, KB자산운용 등과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최대 200kW급 충전기를 임대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 중이다. 2025년까지 전국 주요 도심에 초고속 충전기 5000기를 설치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태생기를 넘어 본격적인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다”며 “현대차그룹은 대규모 국내 투자와 연구개발로 친환경 미래 모



현대자동차·기아가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미래 자동차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국내 허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21조원을 투자한다. 기아 오토랜드 화성 EV6 생산 라인, 기아 PBV 라인업 컨셉트카, 현대차·기아 초고속 충전 인프라 이피트(E-pit)(위 사진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현대차

빌리티 물결에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전기차 시장 ‘게임 체인저’로 도약 의지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는 국내 최초 신개념 PBV 전기차 전용공장을 건설한다. 약 6만6000㎡(2만 평)의 부지에 수천억 원 규모를 투입해 2023년 상반기 착공,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산 시점에 연간 10만대 생산 능력을 확보하며 향후 시장 상황에 맞춰 최대 15만대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기아 송호성 사장은 PBV 전기차 전용공장에 대해 “글로벌 PBV 시장 1위 브랜드에 도전하는 기아 ‘Plan S’를 위한 하나의 큰 족”이라며 “기아는 단기적으로는 파생 PBV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용 PBV와 자율주행기술을 앞세워 전 세계에 PBV 공급

물량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뒤흔구는 ‘게임 체인저’이자 ‘퍼스트 무버’로 도약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25만2719대를 판매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 ‘톱5’권에 진입했다. 2030년 총 323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약 12% 수준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네시스를 포함해 2030년까지 18종 이상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출 예정이다. 올해는 아이오닉 6를 필두로 2024년에는 아이오닉 7이 출시된다. 기아는 13종의 전기차를 출시한다. 올해 EV6의 고성능 버전인 EV6 GT에 이어 내년에는 EV9을 선보일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홈플러스, PB ‘일렉트리카 선풍기’ 5종 출시

홈플러스가 18일 가전 자재브랜드(PB) ‘일렉트리카 선풍기’를 선보였다. 기본형, 서큘팬, 탁상용, 고급형, 발터치 등 5종으로 구성했다. 깔끔하고 고급스런 디자인과 함께 하단부의 두께를 키워 내구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5업 날개를 채택해 풍부한 풍량으로 강력한 시원함을 구현하면서도, 수면용으로 적절한 초미풍 기능도 탑재했다.



LG전자, ‘프로빔’으로 스크린골프 공략

4K UHD 해상도 지원...골프장 예약 플랫폼과 협업

LG전자는 상업용 프로젝트 ‘LG 프로빔’(사진)을 앞세워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전자는 골프장 예약 플랫폼 김캐디와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캐디는 2019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스크린골프 간편예약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한다. 6000여 곳의 스크린골프장에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출시 3년 만에 앱 이용자 수가 45만 명을 넘어섰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LG전자는 김캐디와의 협업이 LG 프로빔 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캐디 사용자들은 향후 앱을 통해 LG 프로빔이 설치된 주변 스크린골프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LG 프로빔 레이저 4K(SGU510N)는 300인치 화면에 4K UHD(3840x2160) 해상도를 지원한다. 밝기는 촛불 5000개를 동시에 켜는 것과 유사한 5000안시루멘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삼성, ‘보이스피싱’ 막는 보안솔루션 공개

악성 앱 설치 미리 차단...업데이트 통해 제공 예정

삼성전자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스마트폰 악성 앱 설치를 차단하는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공개했다.

공식 앱스토어 등 공인된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설치되는 앱의 악성코드를 사전에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한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이력이 확인된 앱의 설치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앱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고 또는 차단 알림을 팝업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출처 미확인 앱 목록을 확인하고 각 앱에 대한 제어 옵션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중 ‘갤럭시S21’과 ‘S22’ 시리즈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웨일 4.1 이상 적용된 국내 모든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신승원 삼성전자 MX(모바일경영)사업부 사규리팀 상무는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악성 앱은 개인정보 유출 뿐 아니라 전화 가로채기에 활용되는 등 더욱 지능화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보안 위협을 최소화해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갤럭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댕댕트립’ 떠나요”...한국관광공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본격 추진

3500여명 참가 ‘댕댕트레킹’ 연계 프로그램
나전역 카페 등 동반여행지 SNS 이벤트 실시
향후 동반가능한 숙박 등 종합정보 DB 구축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산업의 새로운 유망 분야로 급부상하는 반려견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21일과 22일 강원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일대에서 3500여 명이 참가하는 반려견 동반 트레킹 축제 ‘댕댕트레킹’과 연계하는 ‘댕댕트립’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댕댕트레킹’은 2017년부터 시작한 행사로 반려견 트레킹 경주대회, 보물찾기, 목줄 없는 댕댕 프리존 등 반려견과 함께 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댕댕트립’은 정선 나전역 카페, 타임캡슐 공원, 민둥산 트레킹 코스, 꽃벼루재,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 등 정선과 영월 지역의 반려동물 동반여행지 5곳을 홍보하



는 프로그램이다. 우선 일러스트레이터 멍디 작가와 협업한 인스타그램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20일부터 25일까지 한 곳 이상을 방문해 반려동물과 사진촬영 후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2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

행한다. 이밖에 ‘개통령’ 강형욱 훈련사를 초청해 ‘댕댕트레킹’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여행지에서의 펫티켓을 주제로 한 온라인 강연도 한다.

한국관광공사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사업을 위해 3월 국내 반려동물 동반여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향후 반려견 동반여행 정보 제공을 위해 동반가능한 여행지, 숙박정보 등이 담긴 종합정보 DB를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정운문 한국관광공사 레저관광팀장은 “하반기 중 전문 여행사와 공동으로 반려견 전용열차를 활용한 ‘댕댕 트레인’ 등 특색있는 상품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국내관광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분야 확대를 위해 ‘2022 관광플러스팁스’ 참가 기업을 6월7일까지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팀스(TIPS) 선정 기업 중 관광산업과 연계 가능한 핵심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2년 간 관광사업화자금 총 4억 원 지원, 전문컨설팅, 투자유치 기회 등을 제공한다.

김재복 기자 oldfield@donga.com



KT, ‘브릿지 램’ 1기 선발...기업별 맞춤형 멘토링

KT는 ‘KT 브릿지 램’ 1기(사진) 스타트업을 선발했다. 브릿지 램은 스타트업이 사업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KT와 전문 액셀러레이터가 함께 검토하고, 사업 협력과 투자 기회를 만들어가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발된 스타트업은 메이아이, 셀러노트, 쓰리엔젯셀링, 엑스엘에이트에이아이, 원루프, 웨인힐스브라이언트에이아이, 제이에이치씨, 체인로지스, 평행공간 총 9개다. KT는 10월까지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더인벤션랩, 에이씨엔디씨,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기업별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한다. 또 KT와 사업협력 기회 발굴, 사업과 자금 지원, KT인베스트먼트 및 VC투자 검토 지원, 수요기반 세미나 및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권민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